

일본어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연구

정 일 영
(경희대학교)

1. 연구목적 및 범위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우리의 관광문화정보를 전하는 일차적인 수단은 일본어로 번역되어진 번역문이 아닐까 한다.

허갑중(2000)은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관광안내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접촉하는 매체를 a)출발전 관광안내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 b)출발지에 도착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인쇄매체, c)관광목적지에 도착해서 현장안내와 확인에 필요한 표지매체로 들고, 표지매체와 인쇄매체를 부실한 상태로 두면서 인터넷 매체인 관광안내 홈페이지의 선진화에만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광객과 관광자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주어야 할 국내 관광자원해설 인쇄매체의 일본어역 안내문의 실정은 어떠한가?

이운철(2000. p.52)의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인 관광객의 8가지 한국관광 저해 요소중, 관광안내(간판이나 안내표지판, 언어소통등)의 의사소통불편이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의 서울 관광시 필수코스의 하나인 조선시대 5대 고궁중,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에 비치되어있는 우리말과 일본어역 안내 리플릿을 조사 대상 범위로 한정하여 일본어역 관광자원해설안내문의 오류를 찾아 분석하고 이 작업을 통하여 일본어역 관광자원해설 안내문의 새로운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문학작품 등의 일·한번역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번역의 잘못된 부분을 【표기(문자), 문법, 어휘·의미, 문체상의 오역/오용】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항목을 하나 더 세워, 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나누어 고찰한다.

첫째; 어학적인 오류 — 이는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문학작품의 일·한번역과 관련된 연구에서 말하는 표기(문자), 문법·어휘, 문체상의 오류를 들 수 있다.

둘째; 전통 문화 및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 - 이는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류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나 역사를 일본어로 직역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말한다. 이는 의미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여 전달할 우려가 있는 오류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오류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원어민의 감수 → 현재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 남녀 8명(남자;4명 /여자;4명)의 감수를 받았다(이들 중 5명은 전혀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

둘째; 사전과 인터넷 이용 → 사전으로는 조선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廣辭林, 廣辭苑, 日本史廣辭典, 新明解國語辭典(三省堂), 민중엣센스 일한사전을 사용하였고, 인터넷 일본어 검색 사이트인 Goo를 이용하여 어휘의 확인 작업을 하였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의 테마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가 비교적 적은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나, 다행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김경호(2001)는 국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의 연혁 및 유래에 관한 일본어 안내문의 번역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어 안내설명문이 설치되어있는 곳이 간혹 존재하나, 영어에 비하면 그 수가 극히 적고 일본어 번역문에는 오자, 탈자, 어휘 및 문법에 있어 틀린 곳이 많고, 번역 내용도 원어적인 감각이 아닌 한글안내설명문에 대한 직역에 그쳐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 지적하고 있다. 김은 지방자치단체 관내의 일본어 안내문에 그 초점을 맞추어 오류의 유형을 【문자 및 표기의 오용, 띄어쓰기의 오용, 어휘의 오용, 문법의 오용, 문체 표현의 오용, 의미용법의 오용】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오류를 하나로 묶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항목을 더 만들어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일본어역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어학적인 오류와 전통문화 및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 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 일본어역 오류의 유형 및 사례들

금번의 조사를 통해 찾아낸 오류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분석 고찰한다.

4.1. 어학적인 오류

이는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가 용이한 것으로, 문자 및 표기상의 오류, 문법·어휘상의 오류, 문체상의 오류를 들 수 있다.

(1) 문자 및 표기상의 오류

이는 한자의 誤字 사용, 현행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간략체가 아닌 舊字體의 사용, 띄어쓰기, 문장부호가 잘못쓰인 것들을 말한다.

1) 誤字의 사례;

이는 우리말을 일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동음의 한자나 유사한 한자를 잘못 사용하여 일어난 오류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 ① 逡明堂(덕)
- ② 大漢門の名板の文字は(덕)
- ③ 庚戌国恥と高宗皇帝崩壞の時、国民の抗日運動の場であった(덕)
- ④ 左右に并んでいる二の建物の間は(덕)
- ⑤ 興天寺梵鐘(덕)
- ⑥ その後 1999年に 慈善堂と丕顯閣は 夏元された。(경)
- ⑦ 翌年太宗の高徳を刻んだ1万5,000斤の銅鐘を(창)

①과 ⑥은 전각의 명칭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이는 [逡明堂→浚明堂], [慈善堂→資善堂]으로 바로 잡아야한다.

또한 ②, ③, ④, ⑤의 밑줄친 부분의 한자도 [銘板/ 崩御/ 並んで/ 梵鐘]로 바로 잡아야한다. ⑦의 경우,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의 표기로 써야할 [斤]을 [斥]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1万5000斤]으로 바로 잡아야하며,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9000kg]으로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舊字體 한자의 사례;

이는 현행 일본어에서는 舊字體로 정하여 일반적으로 공용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의 사례가 있었다.

- ① 德壽宮案内圖/ 布德門 / 宮中遺物展示館 / 德壽宮美術館 / 卽阼堂 / 德弘殿 / 靜觀軒 / 光化門驛 / 市廳 / 市廳驛(덕)
- ② この建物の前後両側は続きの回廊によって(창)
- ③ 国王は童に喩えられたので、(창)
- ④ 壽康齋(창) → 寿康齋

덕수궁의 경우, 건물명에 舊字體 한자를 사용한 사례가 많았으며, 창덕궁(④)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명 안에 舊字體와 간략체가 함께 쓰이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①, ②, ③의 舊字體 한자를 간략체로 바꾸어보면 다음과 같다.

德壽宮 / 案内図 / 布徳門 / 遺物 / 美術館 / 即阡堂

静觀軒 / 駅 / 市庁 / 兩側 / 竜

3)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오류의 사례;

일본어 문장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덕수궁의 리플릿에는 ①의 사례 외에도 띄어쓰기를 한 곳이 17곳이나 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붙여쓰기를 하여야 한다.

① この中に置かれた昌徳宮の報漏閣自撃漏は、水に依って12支の動物模型が代りに鐘・鼓・鉦等を打って時刻を知らせるように、1536年(中宗31年)に作られた自動水時計である。(덕)

→ この中に置かれた昌徳宮の報漏閣自撃漏は、水に依って12支の動物模型が代りに鐘・鼓・鉦等を打って時刻を知らせるように、1536年(中宗31年)に作られた自動水時計である。

또한 문장부호의 오류로는 ②의 사례에서 보듯이, 숫자 다음의 부분에서는 [,]으로 쓰여할 것을 [.]로 사용한 오류가 있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고쳐써야 한다.

② 現在の総面積は135,212坪,(창) → 現在の総面積は135,212坪、

(2) 문법 및 어휘상의 오류

이는 문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어휘의 쓰임이 어색하거나 잘못쓰여 일본어 문장으로서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여기서 다루는 어휘상의 오류는 [2. 전통 문화 및 역사를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와 구별한다.

1) 문법상 오류의 사례;

① 昔御堂は1593年宣祖(1567~1608)が諸先王を追慕、回想する為に建てられた、仁穆大妃(1584年)の幽閉処でもあったこの所は 1904年焼失

され、同年再建して現在に至った。(덕)

이는 우리말 원문이 없는 일본어역으로, 문장을 둘로 나누면 이해하기 쉬운 것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들고 있다. 우선 상기의 예를 둘로 나누면, [석어당은 1593년 선조가 ~지어졌다.]라는 부분과 [인목대비의 유폐지였던 ~ 같은 해에 재건하여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의 [昔御堂は1593年宣祖(1567~1608)が諸先王を追慕、回想する為に建てられた、~]로 이어지는 이 문장은 [昔御堂は1593年宣祖(1567~1608)が歴代諸先王を追慕回想するために建てられた。]로 문장을 맺을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仁穆大妃(1584年)の幽閉処でもあったこの所は1904年焼失され、同年再建して現在に至った。]는 [仁穆大妃(1584年)が幽閉された所でもあったここは1904年焼失したが、同年再建され現在に至っている。]로 바꾸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② 韓国の伝統と近現代の歴史と文化が息づくここ徳寿宮で、意義のあるゆとりある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덕)

상기의 일본어역 문장의 밑줄친 부분의 우리말 원문은 [의미있고 여유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로 되어있으나, 이는 우리말을 일본어로 직역한 것으로 일본어로서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는 [有意義でゆとりのある/ゆとりのある有意義な] 와 같이 바꾸어쓰면 일본어로서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③ 徳寿宮はもともと成宗王の兄である月山大君の居であった、1592年の豊臣秀吉時代の文禄・慶長の役(韓国では壬辰倭乱という)の際に王宮の全てが焼け落ちたため、1593年から行宮として使用され始めた。(덕)

상기의 문장은 우리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여 상당히 긴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된 사례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문장을 둘로 나누어 쓰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 徳寿宮はもともと成宗王の兄である月山大君の居であった。1592年、壬辰の乱の際に~。

④ 左右に并んでいる二の建物の間は(덕)

이는 우리말 원문에는 없는 내용을 일본어로 명시한 부분으로, [두 개의 건물 사이는~]이라는 내용을 일본어로 제시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脱字의

오류로도 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문법상의 오류로 보아 [二つの建物]로 고친다.

⑤ 273年間再建されなかった。(경)

⑥ ところが1895年に明成皇后が日本人に殺害さぬる事件が起こり(경)

⑤, ⑥의 사례는 誤字의 예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법적인 오류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273年間再建されなかった。(경)

→ ところが1895年に明成皇后が日本人に殺害される事件が起こり(경)

⑦ 昌徳宮は光海君以降13代にわたり約270年間政務がとられた宮殿で、正殿である景福宮より長い間、王様の御在所である。(창)

⑦의 사례는 원문에 있는 [광해군 이후 고종까지 13대에 걸쳐]에서 일본어역에 [고종까지]가 빠짐으로써 문의 연결이 어색해졌고, 문장의 마지막을 과거표현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표현하여 일본어 문장으로서의 어색함을 나타낸 사례이다. 이를 바르게 고쳐보면 다음과 같다.

→ 昌徳宮は光海君以降約270年間13代にわたり政務が執られた宮殿で、正殿である景福宮より長い間、王様の御在所であった。

⑧ 景福宮の受朝正殿で、文武百官の朝賀をはじめ国家儀式を行い、外国の使臣を接見した法殿で朝鮮の太祖4年(1395)に創建された。(덕)

세궁의 리플릿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중의 하나가 주어 없이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다. 상기의 사례는 문장의 상단에 근정전이라는 주제하에 문장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문장을 시작하는 서두에 주어가 빠지므로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장을 다시 읽게 만든다. 또한 [문무백관의 하례를 비롯하여 국가의식이나, 외국사신을 접견하던 법전으로~]라는 사항의 열거를 나타내는 문장을 상기와 같이 번역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어 문장으로서의 연결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를 바르게 고쳐보면 다음과 같다.

→ 勤政殿は文武百官の朝賀をはじめとする国家儀式を行ったり、外国の使臣と接見したりした法殿で朝鮮の太祖4年(1395)に創建された。

2) 어휘상 오류의 사례;

여기서 말하는 어휘상의 오류는 일본어로서의 어휘 사용이 부적합한 것을

말한다.

① 薄石(を)敷いた広場には(덕)

이는 우리말 원문에, [박석을 깔 마당에는~]으로 되어 있어 우리말의 [박석]을 한자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어 검색사이트 Goo나 『조선어대사전』, 일한사전등에도 올라 있지 않은 어휘로 일본어로는 [平たい石]의 뜻을 나타내나, 하나의 명사로 바꾸어쓰면 [石畳]로 바꾸어쓸 수 있겠다.

② 南廷哲の筆体である(덕)

이는 우리말 원문에, [남정철이 썼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筆体]로 바꾸어 놓았으나, 이 또한 일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로 [書体]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休憩処として使われたが、一時御真が置いたこともあった。(덕)

④ 其の処に興礼門を夏原する等景福宮の原形を夏原する事業を断続している。(경)

③, ④의 사례 [処]는 장소를 나타내는 한자이기는 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休憩の場 · 休憩する所 · 休憩所 / その場所に · そこに]라 고쳐 써야한다.

또한 경복궁의 복원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어야 하는 어휘를 [断続]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継続]으로 바꾸어야한다.

⑤ 六角形の二層建ての香遠亭を造った(경)

⑥ 香遠亭は普通二層と言われるが~

⑤, ⑥의 사례는 우리말의 층(계)를 나타내는 한자를 일본어 번역문에 그대로 사용하여 일본어로서 부적합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는 모두 [階]로 바꾸어야한다.

⑦ 伝統民族芸能行事(덕)

이는 우리말 원문에 [전통민속놀이행사]라고 하는 부분을 일본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나, [민속놀이]는 [民族芸能]가 아니라, [民俗遊び/ 民間遊び]라고 하여야 한다.

⑧ 樂善齋は憲宗13年後宮の処所として~。(창)

우리말의 [處所]는 [사람이 기거하거나 임시로 머무는 곳(표준국어대사전)]의 뜻으로 쓰이나, 일본어에서는 이와 같은 한자어휘의 쓰임이 없고, 이를 나타내

기 위해서는 [居所、居場所、住みか]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문체상의 오류

일본어 문장쓰기에는 「だ・である体(常体)」와 「です・ます体(丁寧体)」를 같은 문장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체를 혼용한 오류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류의 사례가 다음의 하나 뿐이었으며 바르게 고쳐쓰면 다음과 같다.

- ① 本来の名称は大安門でしたが、1906年大漢門と名づけた。(덕)
 → 本来の名称は大安門であった(だった)が、1906年大漢門と名づけた。

4.2. 전통 문화 및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

이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어휘나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를 일본어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로, 특히 전통 건축 및 전통 문화와 관련된 우리의 한자어휘를 그대로 일본어 번역문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가 두드러졌다.

(1) 전통 문화를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

이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나타내는 한자어휘를 일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逐語譯이 되어 나타나는 문제점과 오류로,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건축용어, 문화용어, 직위용어] 등을 들 수 있다.

1) 건축용어 오류의 사례;

- ① 현재 덕수궁의 면적은 18,635평이며, **경내**에 남아 있는 건물로는~.(덕)
 → 現在、徳寿宮の面積は61,205㎡で、**境内**に残っている建物としては~。

우리말에서의 [경내]는 [일정한 지역의 안(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뜻을 나타내나, 일본어에서는「神社、仏閣などの敷地内(広辞林)」의 뜻을 나타내므로 이는 [宮廷の中]라고 바꾸어 써야한다.

- ②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 4년(1395)에 창

건한 정궁이다. (경)

→ 景福宮は1395年に創建された朝鮮王朝の**正宮**である。

우리말에서의 [정궁]은 [황후나 왕비를 후궁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며, 일본어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正宮]이라는 어휘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우리말 설명문이나 일본어역에서 건물을 칭하는 어휘로 [정궁/正宮]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우리말의 경우 [궁전], 일본어의 경우도 [宮殿]으로 번역함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③ この建物も康寧殿のように屋根の**大棟**を設置しなかった。 (경)

④ 이 건물은 지붕에 **용마루**가 없는데~. (창)

→ この建物の特徴は、**棟瓦**を置い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韓国ではこの瓦を「**龍棟**」と呼び~。

우리말에서의 [용마루]는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마루]를 의미한다. ③과④의 일본어 번역을 보면, 각각 그 용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말의 [용마루]에 가장 가까운 의미의 일본어를 찾아 보면 [大棟, 水平な棟(広辞林)]로서, 이들 용어를 일치시키면 좋겠다. 특히 「**龍棟**」은 [コンマル]와 같이 가다가나로 표기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⑤ 지금의 총 면적은 135,212평에 궁전 건물이 13동, **후원**에 28동의 정자와 누각이 남아 있다. (창)

→ 現在の総面積は135,212坪、宮殿の建物が13棟、**後庭**に28棟の楼閣が残っている。

⑥ 비원으로 더 잘 알려진 **후원**은 자연과 조화된 아름다움을 한껏 살린 ~. (창)

→ 秘苑で良く知られている**後苑**は自然とともに調和された美しさを生かした ~。

⑦ **후원**에는 취운정·상량정, 별당인 한정당이 ~. (창)

→ **後庭**には聚雲亭、上涼亭、別堂である閑靜堂が ~。

⑤, ⑥, ⑦의 사례는 모두 창덕궁 리플릿에 있는 내용으로, 같은 [후원]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역에서는 [後庭/後苑]으로 번역되어있다.

일본이 우리의 궁의 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비원]이라는 어휘가 사용되었다하여, [후원]이라는 어휘가 채택되었다. 그렇다면 이곳에 대한 명칭인 [後

苑]은 다른 전각의 명칭과 같이 고유명사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상기의 사례에 쓰여진 [後庭]은 모두 [後苑]이라고 바뀌어야 한다.

⑧ 八作屋蓋の6×3間で、(덕)

덕수궁의 일본어역 리플릿에는 [八作屋蓋 / 間]이라는 어휘가 여러곳에 나타난다. 일본어역의 [八作屋蓋]라는 어휘는 우리말의 [팔작지붕]을 일본어로 옮긴 것으로, 유사어로는 [합각지붕]이라 한다. [합각지붕]이란 [위의 절반은 박공지붕으로 되어있고 아래 절반은 네모꼴로 된 지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건축양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어에 없는 [八作屋蓋]라는 어휘를 굳이 일본어로 바꾼다면 [入り母屋]로 바꿀 수 있다. 일본어에서의 [入り母屋]는 [上の方が切妻で、下の方は四注造りのように、四方に勾配を持った屋根の形(広辞林)]를 뜻한다. 또한 [6×3間]이란 [정면 6칸, 측면3칸]을 뜻하는 것으로[칸(間)]이란 [집의 칸살의 수효를 세는 단위(표준국어대사전)]이다. 이는 우리말 원문에도 없는 내용으로 이 같은 번역문이 필요한지 의심스럽다.

⑨ 회정당은 앞· 뒤 양쪽이 북도로 연결되어 앞으로는 궁궐 입구로, 뒤로는 중궁전 행각으로 이어진다. (창)

→ この建物の前後両側は続き回廊によって、前面は宮殿の入り口に、後面は中宮殿の回廊に通じている。

이는 회정당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우리말 [북도]와 [행각]을 모두 일본어에서는 [回廊]로 번역한 것이다.

일본어에서의 [回廊]란 [長くて折曲がった廊下(広辞林)]라고 하는 [북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며, 우리말의 [행각]은 [궁궐이나 절 따위의 正堂 앞이나 좌우에 지은 줄행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의 [줄행랑]이란 [대문의 좌우로 죽 벌여 있는 방]의 뜻을 나타낸다. 즉 우리말의 행각은 [줄지어 있는 방]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의 [북도 / 행각]을 모두 [回廊]로 번역해 놓은 것은 잘못이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말의 [중궁전]을 그대로 한자로 바꾸어 [中宮殿]으로 번역해 놓고 있다. 우리말에서의 [중궁전]은 [왕비가 거처하던 궁전. 내전]이라는 뜻을 나타내나, 일본어에서는 [中宮殿]이라는 어휘의 쓰임은 없고, [中宮; 皇后、皇太后、太皇太后の三宮の総称(goo)]의 뜻을 나타낸다. 이는 [この建物は前後両側が回廊によって続いており、前の方は宮殿の入り口に、後ろの方は王妃の住む宮殿に通じている]로 바꾸면 이해하기 쉬운 문장

이 된다고 생각한다.

⑩ 임진왜란때 대부분의 정자가 소실되고 지금 남아있는 누정은 ~ . (창)

→ 壬辰倭乱の際、大半の庭亭が消失し、今残っている楼亭は~ .

우리말의 [정자]와 [누정]을 번역해 놓은 [庭亭]이나 [楼亭]이라는 일본어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우리말에서의 [누정]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의 뜻을, [정자]는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으로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다(표준국어대사전)]는 뜻을 나타낸다. 이를 일본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亭 ; 眺望または休憩のために庭園に設けた風雅な建物(広辞林)]나 [あずまや(東屋) ; 屋根と柱だけの小屋で庭園の中などに建てて休憩所とする(広辞林)]로 바꾸어써야 하겠다.

2) 문화용어 오류의 사례;

① 고종, 순조의 어진을 봉안하기도 하였다. (덕)

→ 後日には御真奉安処にもなった。

② 一時御真が置いたこともあった。

①, ②의 사례에 쓰인 우리말의 [御真]은 [임금의 畫像이나 寫眞]을 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어는 [御真影(天皇・皇后兩陛下の写真の敬称)]로 이는 모두 [御真影]로 바꾸어 써야한다.

③ 後苑には宝物第810号である十長生模様が刻まれた壁と~ . (경)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가지]를 우리말에서는 [십장생]이라 하나, 일본어에서는 한 단어로 이를 나타내는 어휘를 찾을 수 없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長生きを象徴する十種のもの; 松・亀・鶴など]와 같이 번역해주면 일본인 관광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端雅な正殿の内側には日月五岳屏風を背景にした~竜床が座している。(덕)

⑤ 건물 중앙에 임금이 일월오악도를 배경으로 앉고 ~. (창덕궁)

→ 建物の中央に、王が日月五岳図を背景に座り、~ .

④, ⑤의 사례에 쓰인 [일월오악도]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일명 [일월도]로 정식 명칭은 [五峰日月圖]로서, 이는 [우리나라의 다섯 名山과 해, 달, 소나무를 그린 그림으로, 예전에 용상(竜床) 뒤에 장식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되어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五峰日月圖]가 창덕궁과 덕수궁의 일본어역에서는 둘로 나누어 표기되어있으나, 이 또한 통일성이 없다. 우리말에서는 정식 명칭인 [오봉일월도]로, 일본어역에서는 [オボンイルウォルド(五峰日月図)]; 韓国の有名な五つの山と太陽、月、松の木などが描かれた屏風]와 같이 표기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⑥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사신들의 접견등, ~ .(창)

→ 王の即位式、臣下の**朝礼式**、外国使臣の接見等、 ~ 。

⑦ 北闕図に因ると、東宮は世子が百官から**朝会**された ~ .(경)

⑧ 景福宮の受朝正殿で、文武百官の**朝賀**をはじめ国家儀式を行い、(경)

⑦, ⑧의 일본어역에 대한 우리말 원문은 없으나, ⑥과 ⑧의 [하례]와 [朝賀]는 [문무백관이 임금 앞에 나와 축하의 예를 갖추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어휘이다. 일본어에서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賀礼 ; めでたい礼式]로 ⑥과 ⑧은 [⑥ 臣下の賀礼 / ⑧ 文武百官の賀礼]로 바꾸어야한다. 일본어에서의 [朝礼]는 [仕事や授業を始める前に行う朝ごとの行事(新明解)]의 뜻을, [朝会]는 [学校などの朝礼の会(新明解)] 뜻을 나타내는 어휘로 ⑥과 ⑦에서 이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⑨ 박석을 깐 마당에는 품계석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다. (덕)

→ 薄石敷いた広場には、文武百官の**品階石**が立てられている。

우리말에서의 [품계]란 [여러 벼슬자리에 대하여 매기던 등급으로 정일품에서 종구품까지 18단계]의 뜻을 나타내며, 일명 [품석]이라고도 하는 [품계석]은 [조선시대에 품계를 새겨서 대궐 안의 정전 앞 뜰에 세운 돌(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한다. 이에 대한 일본어 어휘는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位階]라는 어휘가 있으며, [位階]는 [位階令に基づいて、国家に功勞のあった者、または在官、在職者に与えられる。一位から八位までそれぞれ正・従の計十六階がある]의 뜻을 나타낸다. 이를 고쳐쓰면 다음과 같다.

[石畳が敷かれた広場には文武百官の位階を表す石が立てられている。]

⑩ 景福宮の**受朝**正殿で、~ .(경)

이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설명한 문장으로, 이에 대한 우리말 원문은 없다. 우리말에서의 [受朝]란 [임금이 신하들로부터 조회를 받던 일(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 것으로, 굳이 [受朝]라는 어휘를 써서 이해에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 勤政殿は景福宮の正殿で～。

3) 직위용어 오류의 사례;

① 北闕図に因ると、東宮は世子が百官から朝会された正堂である繼照堂～。(경)

② 현종 13년(1847) 후궁 김씨의 처소로 지은 것으로～.(창)

→ 憲宗13年(1847)後宮の処所として建てられたが、～。

③ 1989년 4월까지 덕혜옹주와～.(창)

→ 1989年4月まで徳惠翁主と～。

①의 사례에 대한 우리말 원문은 없으나, 우리말에서의 [세자]는 [왕위를 이을 왕자]를 뜻한다. 그러나 일본어의 [世子]는 [殿様(江戸時代の大名または旗本)의嫡子(広辞林)]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격이 떨어지는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하기 보다는 [王子]로 번역함이 좋겠다.

②의 경우, 일본어에서의 [後宮]은 [后妃などが住む奥向きの御殿(広辞林)]의 뜻으로, 우리말에서의 [후궁]과 달리 일본어에서의 [後宮]은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이는 [側室/后妃]로 바꾸어 써야한다.

③의 [옹주] 또한 일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로 [王女]로 바꾸어야 한다.

④ 덕수궁은 원래 성종 임금의 형인 월산대군～.(덕)

→ 徳寿宮はもともと成宗王の兄である月山大君～。

⑤ 선조 임금의 뒤를 이은 광해군～.(덕)

→ 宣祖王の後を継いだ光海君～。

④, ⑤는 우리말의 임금을 그대로 [王]으로 바꾸어 놓은 사례이다. 굳이 [成宗, 宣祖]라는 어휘 다음에 [王]을 붙여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⑥ 高宗皇帝の後妃嚴妃(1907～1911)の居所で～。(덕)

⑦ 仁穆大妃(1584年)の幽閉処でもあったこの所は～。(덕)

⑥, ⑦에 대한 우리말 원문은 없다. 조선시대 궁중 여인들의 품계를 나타내는 어휘로 ⑥, ⑦의 일본어 리플릿에는 [後妃, 大妃]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나, ⑥의 [後妃]라는 어휘는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고, [大妃]는

[先王의 后妃(표준국어대사전)]라는 설명이 있었다. ⑥에서 말하는 [後妃]는 사례 ②의 [後宮]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어로는 [側室/后妃]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⑦의 [大妃]는 [亡くなられた皇太后]를 뜻하는 [皇妣]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⑧ 글씨는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지낸 남정철(南廷哲)이 썼다.

→ 大漢門の名板の文字は漢城判尹(市長)の南廷哲の筆体である。(덕)

이는 조선시대의 판윤이 지금의 시장에 해당함을 명기해준 하나뿐인 사례로 이같은 설명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大韓門の銘板は当時の人である南廷哲の書体である] 정도로 번역해 놓는 것이 좋겠다.

(2)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오류

여기에서 말하는 오류란, 시대 표기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함에 있어서 어휘를 잘못 사용한 경우의 오류를 말한다.

① 1592년 임진왜란 때~ (덕).

→ 1592年の豊臣秀吉時代の文禄・慶長の役(韓国では壬辰倭乱という)の際に~。

② この宮殿は、1592年に起こった文禄・慶長の役の兵火で全焼して以来~。(경)

日本史広辞典에는 [文禄の役]와 [慶長の役]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文禄の役 ; 一五九二年(文禄元)四月、豊臣秀吉が明征服をめざして朝鮮に侵略した戦争(第一次朝鮮侵略)。朝鮮では壬辰の倭乱とよぶ。

◎ 慶長の役 ; 一五九七年(慶長二)二月~九八年十一月の豊臣秀吉の第2次朝鮮侵略。朝鮮では丁酉の倭乱とよぶ。

①, ②의 사례 모두 [文禄・慶長の役]이 각각 1592년과 1597년에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모두 1592년에 일어난 것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이 고쳐야 한다.

→ 1592年の豊臣秀吉時代の文禄・慶長の役 ; 1592年文禄の役

→ この宮殿は、1592年に起こった文禄・慶長の役の兵火で ; この宮殿は、1592年に起こった文禄の役の兵火で

③ 특히 **영왕 내외분**이 착용하시던 복식과 장신구들을 ~ .(덕)

→ 英国国王夫妻が着用なされた服や装身具などを~ 。

이는 고종의 넷째 아들이며 순종의 이복 동생인 영왕을 [英国国王]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왕 내외분]이란 [영왕 이은과 이방자 여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英王]으로 번역해 놓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コンワン(英王)]로 번역하면 좋겠다.

5. 결론

금번 연구의 조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일본어로 번역되어지기 이전의 우리말 안내문의 내용이 보다 충실히 만들어져야한다.
- 2) 일본어로 번역되어진 안내문은 보다 철저한 원어민의 감수가 필요하다. 덕수궁의 리플릿의 경우는 문자 및 표기상의 오류가 두드러졌으며, 김경호의 지적과 같이 세 궁의 리플릿 모두 원어적인 감각이 아닌 한글 안내문에 대한 직역투의 번역이 현저하였다.
- 3)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역사에 나타나는 인명, 지명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 세워져야한다.
- 4) 우리의 전통 문화와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 어휘의 직역이 두드러져, 일본인 관광객의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용어의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수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금번 조사연구분석시, 오류 확인을 위해 수고해 준 원어민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한 사람도 있었다.

- 1)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어역 안내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 2) 현행 일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가 너무 많다.
- 3) [壬辰倭亂]의 경우와 같이 [倭]라는 어휘는 차별용어이다.
- 4) [ところが1895年に明成皇后が日本人に殺害さねる事件が起こり]와 같은 표현은 모든 일본인을 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인물을 표기해주거나, [ある日本人に~]와 같이 표현해주기를 바란다는 요

구도 있었다.

이상의 조사연구 결론과 지적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일본인 관광객과 우리의 관광자원해설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일본어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의 번역 오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과 더 나아가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선진화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번역되어진 관광안내 번역문은 재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번역될 관광안내문은 상기의 사실을 유념하여 번역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허갑중, 2000, 「우리나라 관광안내체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 관광I&I정보, 한국관광연구원.
- 이운철, 2000, 「일본인 관광성향과 관광목적지 선택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 김경호, 2001, 「한국내 관광지의 일본어안내문 번역에 관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연구」, 제4회 한국일본학회 프로시딩스.
- 박영규, 1997,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도서출판 들녘.

참고사전

- 新村出編, 1978, 『廣辭苑 第二版補訂版』, 岩波書店.
- 三省堂編修所, 1978, 『廣辭林 第五版』, 三省堂.
- 大島建彦 外五人, 1982, 『日本を知る事典』, 社會思想社.
-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編, 1986, 『朝鮮語大辭典 上·下卷』, 角川書店.
- 日本史廣辭典編集委員會, 1997, 『日本史廣辭典』, 山川出版社.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상·중·하』, 두산동아.

KCS I

[Abstract]

A Study of Errors in Korean-Japanese Translation for the Travel Information Leaflets

Chung, Il-young
(Kyung Hee University)

Among media sources providing Japanese visitors who don't speak Korean at all with travel information about Korea are printed materials, including Internet web sites, and signboards, etc. I examined the leaflets, one of the printed forms of material, introducing three of the five main palaces; Kyungbok gung, Ducksu gung and Changduck gung, and analyzed the errors that most commonly and frequently appeared in this materia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1) The inadequately written original Korean leaflets have prevented the Japanese version of the leaflet from being an authentic source of information.
- 2) Old Chinese words no longer used in current Japanese vocabulary, too sophisticated words even unfamiliar to Japanese and grammatical errors frequently appeared.
- 3) Standard uniform Japanese terms for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re needed.
- 4) Editing agencies and professionals specializing in Japanese translations for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y are required. And also native Japanese editors need to do thorough work.

What was gained from this research is the fact that the errors in translations not only cause trouble in communicating, but also do damage to the national image. Furthermore, they can be a big obstacle to attracting international tourists and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In the final analysis, my suggestions are that attentive revision should be given to the present translations of travel information guides and from now on, all translation should be done considering the matters mentioned above.

K C I